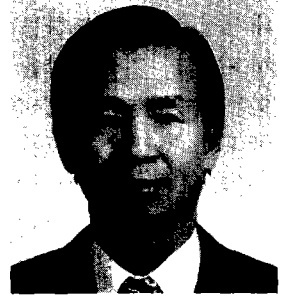


세계화시대와 우리의 농공기술발전전략

이 근 모
(한국농공학회 부회장)
(농어촌진흥공사 부사장)



우리나라의 국민 일인당 GNP가 지난 1996년말 현재로 1만불을 넘어섰다. 이 수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만불 이상이 되면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만큼, 우리 모두가 흥분된 마음으로 이를 지켜 보았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

기술발전은 경제발전과 고도산업사회를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의 터전인 농공기술 분야도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기술도약으로, 개방화 세계 속에서 그 진면목을 보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농공기술은 선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요소로서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 농공인들이 앞서서, 이를 극복하고, 대단한 집념과 의지로서 발전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기술은 바람직한 모습이 못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발전이 지리멸렬한 상태로 될 수도 있는 위기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농공기술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발전전략에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공기술의 세계화는 우리 기술이 세계각국에 진출하여 세계경제에서 우리 한국경제가 차지하는 지분만큼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농공기술도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발전시켜야 한다. 농공기술진출의 세계시장은 대단히 크고, 확실하다. 가장 기대되는 유망시장의 하나이다. 이는 그 형태가 기술용역이나 기술지원 또는 해외농장개발로 나타난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건설 및 기자재의 수출확대가 이루어지므로 농공기술의 세계화는 이젠 필수적이다.

우리의 농공기술 발전은 세계 속의 한국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국내에서만 통하는 기술은 값이 없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세계화에 일찍 눈을 떴고, 1967년 월남의 메콩델타 농업개발사업에 주월기술단을 파견, 기술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브루나이, 남미, 아프리카 등에 우리 기술전문가들이 진출, 농업부문 개발사업에 참여하였다. 현재까지 우리가 농공기술분야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획득한 외화 총액이 4,400만불이다. 주로 기술용역이었으므로, 해외건설공사의 외화가득률을 10% 정도로 보면, 이는 건설공사 4억4천만불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다.

세계화개념에서의 기술은, 과거 개발도상국에 지원했던 수준의 농공기술 전파에 만족해서는 아니된다. 과거에는 일반적인 기술의 설계, 공감업무에 만족해도 되었지만, 지금은 최

첨단 고급기술로 무장해야 한다. 우리의 기술지원을 받았던 개발도상국가들도 과거에 우리가 무기로 삼았던 기술 수준에 도달했기 했기 때문이다.

WTO 체제하에서는, 소극적으로는 외국기술의 국내시장 진출에 대하여 방어적인 개념의 국내시장을 지켜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적극적인 수단으로서는, 해외시장으로 진출해서 우리의 기술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다. 이제부터는 고급화되고, 차별화된 수준 높은 기술경쟁력이 필요하다.

국내의 농공기술관련 사업을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목적의 농공기술발전 당위성 보다 국제경쟁에서 우리를 지키고, 한 발자욱 더 나가, 우리가 세계로 진출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주변환경이 농공기술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세계화시대에 있어서의 우리 농공기술발전 전략은 기술경쟁력 제고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농공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이 국제관개배수위원회, 한국관개배수위원회 등의 국제사회단체에 소속하여, 왕성한 기술활동을 하고 있기에, 우리가 유치한 2001년 제1차 국제관개배수위원회 아시아지역회의 및 제52차 국제관개배수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성을 기울이면 훌륭한 국제 수준의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농공기술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하여, 연구기관 및 대학은 최신의 최첨단 학문연구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술이론은 대학 및 연구소에서 정립되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의 사업집행기관과 기술단체들은 현장에서 최신의 첨단기술을 발전·수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농어촌진흥공사가 1993년부터 농공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 1998년까지는 일본의 농업과학연구소, 2001년까지는 화란의 델프트수리연구소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목표를 정하고, 초현대식 연구원 청사의 신축, 고급장비와 기자재의 구입 배치 및 많은 석박사와 기술사 등 고급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있는 것은 좋은 발전과 노력의 예이다.

셋째, 정부는 농공기술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연구비 지원과 이 기술의 활용무대인 해외농장 개발사업시행 등에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 해외농장개발 진출은 우리나라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차원 뿐만 아니라, 빠르게 다가오는 남북통일 대비의 식량확보에서 그 사업목적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농공인들은 이제 우리시대의 소명이 농공기술의 세계화라는 것을 재인식하고, 세계화지향적인 기술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발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자기 전문분야의 기술실력 배양, 세계화의 필수요소인 외국어능력 배양 그리고 컴퓨터 통신기술을 익히고 생활해야, 이 시대에 맞는 농공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초점을 마춘 농공기술발전이 우리가 이룩하여야 할 시대적 소명이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정책적 뒷받침을, 기술단체는 사업시행에 연결시키는 일을, 그리고 대학은 첨단기술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농공기술인 한사람 한사람은 자기의 실력을 키우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